

에이즈 치료제 임상2상 시험 완료

VGX, 최종결과 연말·연초 발표 예정 ... 48명 대상시험 9월 종료

미국계 제약기업인 바이럴제노믹스(VGX)는 현재 개발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의 임상시험과 관련 “임상 2상 시험의 최종 결과는 2005년 말이나 2006년 초 공식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10월24일 발표했다.

VGX는 10월26일 미국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예비데이터를 알려준다는 내용이 확대 해석됐다”고 밝혔다.

VGX에 따르면, 현재 VGX가 개발중인 에이즈치료제의 임상시험은 2004년 12월 미국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뒤 2005년 1월부터 미국의 9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1상과 2상이 동시에 시작돼 9월 종료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모두 48명으로 총 기간은 투약기간 4주와 경과 추적 관찰기간 4주 등 8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정확치 않다는 것이 VGX의 설명이다.

VGX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미국 정부기관의 임상시험 주관단체인 AACTG(Adult Aids Clinical Trial Group)에서 할 예정”이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부 예비적인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0/26>